

호랑이 군단, 우승 경쟁 상대에 더 강했다

KIA타이거즈가 올시즌 7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KIA는 올시즌 술한 화제와 기록을 남기며 지역민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줬다. 김중국 전 감독의 불명에 퇴진 후 이범호 타격 코치를 사령탑으로 내부 승격시키며 '초보'라는 걱정 섞인 시선을 받았고, 스프링캠프와 시범경기부터 부상 악재가 줄을 이었지만 '하나의 팀'으로 뭉쳐 정규시즌 우승과 한국시리즈 직행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우승 경쟁 상대에 대한 강세, 팀 평균자책점·타율 1위, 프런트의 뒷받침, 뜨거웠던 팬들의 응원 등 KIA의 통산 7번째 정규시즌 제패 원동력을 되돌아본다.

편집자주

KIA타이거즈 2024 정규시즌 결산

<1> 호랑이는 2위만 팬다

2위에 23승 3패... 승률 88.5%
NC부터 두산·LG·삼성 등 연파
6월 중순부터 독주 체제 원동력



이범호 감독 체제로 탈바꿈한 호랑이 군단이 2024년 정규시즌을 제패하며 7번째 패튼트

레이스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 감독은 초보 사령탑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적재적소에 작전을 성공시키며 경쟁 상대들을 한 팀 한 팀 물리치고 챔피언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었다.

KIA타이거즈는 지난달 30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NC다이노스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정규시즌 최종전을 끝으로 144경기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정규시즌 7경기를 남겨놓고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 지으며 한국시리즈에 직행한 KIA는 87승 2무 55패(승률 0.613)로 단일 리그 기준 구단 최다 승리 기록을 달성했다. V11을 달성했던 2017시즌(87승 1무 56패·승률 0.608)에 이어 두 번째다.

KIA가 이처럼 성공적인 정규시즌을 보낼 수 있었던 데는 승부처에서의 강세가 크게 작용했다. KIA는 유독 우승 경쟁을 펼쳐야 하는 2위 팀을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이며 '호랑이 꼬리잡기의 저주'라는 징크스를 만들어냈다.

KIA가 본격적으로 단독 선두를 질주하기 시작한 4월 중순부터 정규시즌 우승을 굳히기 시작한 6월 중순, 한국시리즈 직행을 확정 지은 8월 말과 9월 중순에도 2위 팀에게만큰은 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시리즈 시작을 기준으로 2위 팀과 26경기에서 23승 3패, 승률은 무려 8할8푼5리에 달했다. 이 기분 좋은 징크스의 제물이 된 팀은 NC다이노스를 시작으로 두산 베어스와 LG트윈스, 삼성라이온즈까지 네 팀이다.

징크스의 첫 상대는 NC였다. KIA는 NC를 상대로 4월19~21일 안방에서 열린 3연전에서 2승 1패로 위닝 시리즈를 거둔 뒤 5월17~19일 경남 창원NC파크에서 열린 3연전을 싸늘이했다. 4월 중순부터 한 달 가량 2위로 KIA를 추격했던 NC는 이때 치명타를 맞고 점차 순위가 하락, 끝내 가을야구권에서 밀려났다.

두 번째는 두산이었다. KIA는 5월24~26일 열린 두산과 홈 3연전에서 첫 경기



KIA타이거즈 최준영 대표이사와 심재학 단장, 이범호 감독과 주장 나성범 등 선수단이 지난달 25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정규시즌 우승 트로피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를 내줬으나 이후 두 경기를 내리 가져오며 2승 1패, 위닝 시리즈를 확보했다. 이 시리즈 직전 2위로 올라섰던 두산은 KT에게도 패배, 3연패에 빠지며 다시 3위로 내려섰다.

세 번째는 LG였다. KIA는 LG와 두 차례 맞대결을 모두 결정적인 승부처에서 치렀다. 4월9일부터 선두를 달렸던 KIA는 6월7일부터 11일까지 다섯 번 LG에게 잠시 선두를 내줬고 다시 올라섰다. 1.5경기 차 불안한 리드였던 6월18~20일 홈 3연전에서 2승 1패를 거두며 2.5경기 차로 벌리는 동시에 LG를 3위로 끌어내렸다.

이어 LG가 다시 2위로 추격하자 7월9~11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3연전

을 싸늘이했다. KIA는 LG와 6.5경기로 격차를 벌리는 동시에 4위로 끌어내렸고, 2위 삼성을 상대로도 5.5경기 차로 달아났다.

네 번째는 삼성이었다. KIA는 7월16~18일 삼성이 4.5경기 차까지 추격한 상황에서 홈 3연전을 치렀다. 첫 경기가 우천 취소된 상황에서 두 경기를 내리 가져오며 위닝 시리즈를 확보했고, 다시 6.5경기 차로 벌리며 삼성을 3위로 끌어내렸다.

다섯 번째는 다시 LG였다. KIA는 8월16~18일 LG의 4경기 차 추격을 맞은 가운데 원정 3연전에서 싸늘이 승리를 챙겼다. KIA는 LG에게 7경기 차로 달아나며 3위로 끌어내렸고, 2위 삼성과도 5.5경기

차로 벌렸다.

징크스의 대미는 다시 삼성이었다. KIA는 8월31일과 9월1일 삼성과 4.5경기차를 유지한 상황에서 원정 2연전을 치렀다. 정규시즌 우승이 가시화됐던 KIA는 두 경기를 모두 가져오며 매직 넘버를 16에서 12로 줄이고 삼성과 격차도 6.5경기로 벌리며 우승 레이스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KIA는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 짓고 주전을 대거 1군 엔트리에서 말소하며 휴식을 부여한 9월23~24일 삼성과 홈 2연전에서도 모두 승리를 챙기며 2위 팀 상대 88.5%의 승률을 완성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제105회 전국체전 전남도선수단 선전 다짐

육상 등 49종목 1748명 출전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전남도선수단이 결단식을 갖고 필승의지를 다졌다.

전남도체육회는 7일 전남도체육회관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전남선수단 결단식'을 가졌다.

결단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균 전남도지사,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등 주요 기관장과 종목 단체 관계자, 임원 및 선수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오는 11~17일 경남 김해에서 열리는 이번 체전에 전남도선수단은 육상 등 49개

종목 177종별 1748명(선수 1130·임원 618명)이 참가한다.

결단식은 도대표 선수단 훈련 영상을 시작으로 △참가계획 보고 △개식사 △선수단기 수여 △격려사 및 축사 △선수대표 선서 △체육성금 기탁 순으로 진행됐다.

수구 조혜승(전남도체육회)과 배구 김다은(목포여상고 3년)은 선수대표 선서에 나서 선수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대회 출전 승부욕을 다짐했다.

이날 결단식에서는 전남도, 전남도의회,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광주은행, NH농협은행 등이 선수단에 격려금을 전달하면서 사기 진작을 북돋웠다.

최동한 기자

광주 첨단대상파크골프장 확장 개장

파크골프 동호인 등 300여명 참석
9홀 추가·스윙연습장·산책로 조성

광주 첨단대상파크골프장이 문을 열어 광주파크골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체육회는 7일 광주 북구 추암로 일원에서 '첨단대상파크골프장' 확장 개장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서용규 광주시의회 부의장, 이용범 광주시파

크골프협회장을 비롯해 파크골프 동호인,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첨단대상파크골프장은 광주시민 전 연령 파크골프의 대중화와 수요자 증가를 반영해 9홀에서 18홀로 확장을 결정하고 지난해 6월 공사를 시작했다.

사업비 6억5000만원을 투입해 1만 7074㎡ 면적에 18홀 규모로 스윙연습장, 퍼팅연습장, 주변산책로 등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조성됐다.

최동한 기자

광주체고 역도부, 전국체전서 부활 신호탄 쏘까

금1·은2·동5 수확 목표
개막 직전 마지막 담금질



“광주체고 역도부의 황금기 부활에 신호탄을 쏘겠습니다.”

오는 11일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을 앞두고 대회 출전 준비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광주체고 역도부가 황금기 부활을 꿈꾸고 있다.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5개 등 무더기 메달을 수확해 존재감을 알리겠다는 각오다.

광주체고 역도부는 3학년 황민기(81kg급)를 비롯해 2학년 황성민(73kg급)과 신한승(109kg급이상), 1학년 김수빈(64kg급)과 이하선(87kg급), 김체량(87kg급이상)으로 이뤄져 있다.

현재 광주체고 역도부의 중심은 '젊은 피'다. 여자18세이하부에 출전하는 김수빈과 이하선, 김체량 모두 1학년으로 이들이 무더기 메달 사냥에 앞장서고, 향후 2년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광주체중 소속으로 소년체전 3관왕을 거머쥐었던 김체량은 명실상부한 에이스다. 이번 대회에서도 김체량은 용상에서 금메달, 인상과 합계에서 은메달을 노리고 있다.

김체량과 나란히 광주체중에서 광주체고로 전학한 김수빈도 충분히 시상대에



광주체고 역도부 선수단이 최근 교내 오륜관 역도장에서 전국체육대회 대비 강화 훈련을 실시하던 중 인터뷰를 갖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올 수 있는 자원이다. 현재 인상과 용상, 합계 모두 전국 랭킹 상위권에 올라있는 만큼 전 종목 입상을 겨냥한다.

남자18세이하부에서는 만형인 황민기와 허리를 맡고 있는 황성민이 각각 용상과 인상에서 입상에 도전한다.

최기영 감독과 이규철 코치는 전국체육대회가 목전인 만큼 선수들의 기록 조절에 비중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오전에 가볍게 몸을 풀고 체력을 비축한 뒤 오후에 최고 기록에 맞춰 중량을 조절하는 훈련에 임하면서 컨디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최기영 감독은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열심히 훈련해 전국체육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선수들의 자신감을 끌어 올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도 좋은 성적을 거두겠지만 내년, 내후년이 더 기대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체량 역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취를 이루고 싶다. 꼭 메달을 따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다”며 “감독님과 코치님의 지도대로 지구력과 근력 운동에 집중하면서 기록을 늘려가고 있다. 개인 최고 기록인 합계 200kg을 넘어 210kg까지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다짐했다. 글·사진=한규빈 기자